

2022 연차보고서

20
22

ANNUAL REPORT



GREENPEACE

CONTENTS

인사말 → 03

2022 상세 프로젝트 → 05

글로벌 프로젝트 → 07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 → 09

탈원전 캠페인 → 12

기후참정권 캠페인 → 15

해양 보호 캠페인 → 18

생물다양성 캠페인 → 21

플라스틱 캠페인 → 24

시민 참여 캠페인 → 27

캠페인 지원 → 30

그린피스 사람들 → 35

재정 보고 → 39

지구의 미래를 위한 회복력

그린피스 후원자님께

3년 만에 처음으로, 팬데믹에서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공동체가 보여준 회복력을 활용해, 더 큰 위기인 기후 비상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동아시아의 변화는 지구 환경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는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 감시, 플라스틱 소비 감소, 생물다양성 보호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지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후원자님들이 함께해 주시기에 더 큰 희망의 빛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Nam Boonwon

남부원

그린피스 동아시아 이사회 의장



Jui-pyeong Cheong

썬이팍청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



신혼부부에서 은퇴한 기업가, 교사,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직업과 관계 없이,
전 세계 시민들이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그린피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선한 움직임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변화를 만듭니다.



다시 쌓아올리는 희망

2022년은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닥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막고 더 나은 미래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후원자님들의
변치 않는 지원으로, 그린피스는
강력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30 x 30

30X30을 위한 UN해양조약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
를 보호한다는 30x30 목표 달성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삼성, 소니, 텐센트 등 탄소중립 달성 계획 발표

급성장하는 동아시아 지역
IT기업들이 그린피스의 캠페인에
응답해 탄소중립을 약속했습니다.



현대자동차, 2045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제로 약속

그린피스의 캠페인으로 현대자동차는
탄소제로를, 토요타는 전기차 개발 및
판매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 산림 파괴 제품 판매 금지

생산 과정에서 산림을 파괴하며 만들어진 제품의
유럽 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27개국



COP27에서 기후위기 취약 국가를 위한 기금 설립

기후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와 지역을 위한
'손실과 피해'기금이 설립되었습니다.

미래를 바꾸는 변화의 바람

그린피스는 글로벌 환경단체의
장점을 살려 세계 시민들과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1 © Valentina Ricardo / Greenpeace

1. COP27, 기후정의 첫걸음

기후위기에 취약한 남반구 국가 (개발도상국)들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금 설립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2. 우크라이나 친환경 건축 지원

2023년 1월, 폭격으로 파괴된 키이우 인근 병원이 정전 중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 설비와 히트 펌프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3. 태국의 태양광 에너지 개혁

태국의 학교, 병원 등 공공 기관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총 13개 공립 병원과 학교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2 © Oleksandr Popenko / Green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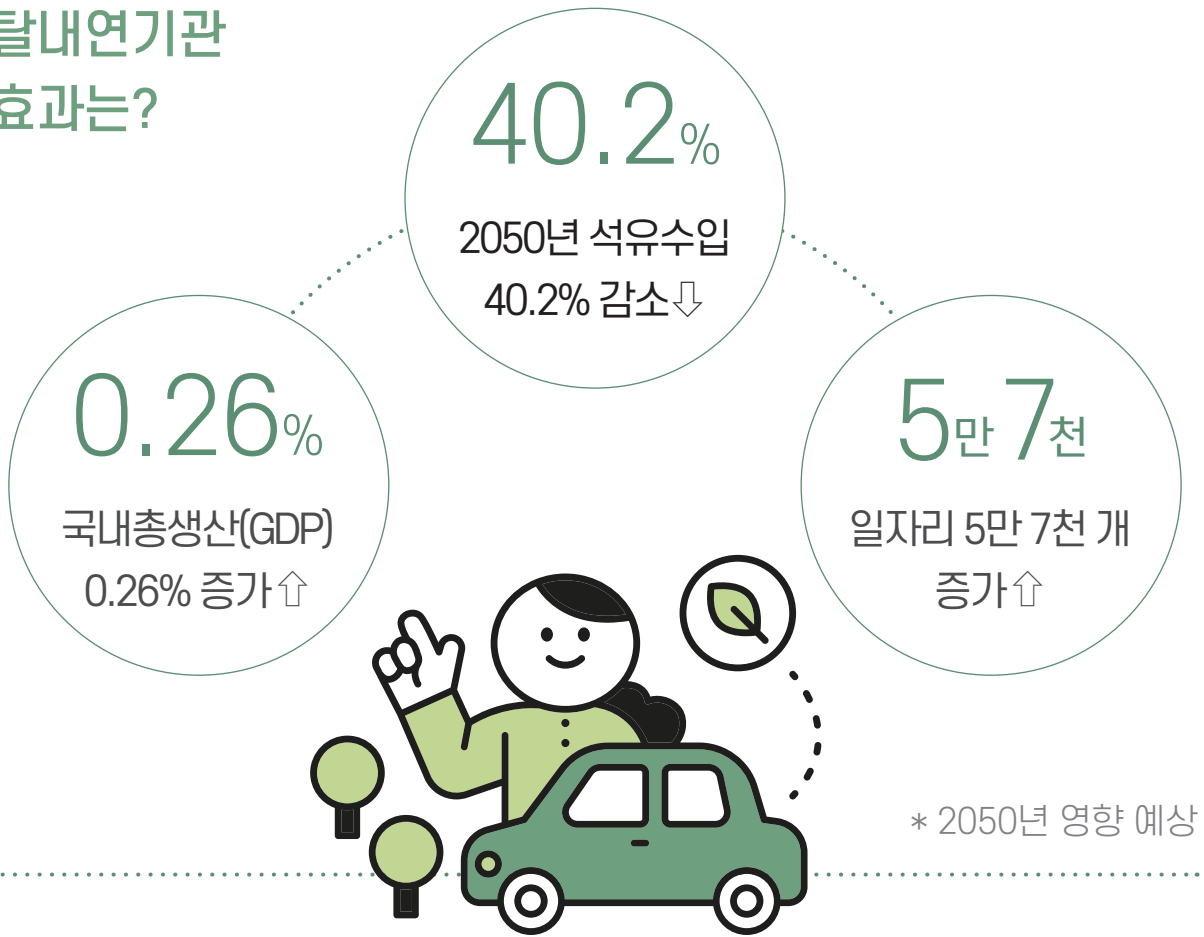
3

© Roengchai Kongmuang / Greenpeace

셋이 모여 바꾸는 자동차 산업

‘3의 법칙’,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3명이 되면 주변의 관심을 끌고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 는 다양한 전문가와 산업계 노동자와 함께, 베이징과 도쿄 사무소와 함께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탈내연기관
효과는?



현장 노동자들의 기후위기 및 전기차 전환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고, 82%는 2035년 이내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정부 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모여 전기차 전환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서울과 도쿄, 베이징 사무소의 협력

그린피스 서울, 도쿄, 베이징 사무소는 주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판매량과 전기차 전환 계획을 분석한 보고서를 두 차례 발행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 지역의 자동차 기업에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세 사무소의 협업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한·중·일 산업계가 서로 긴밀하게 엮여있는 것처럼,
그린피스 서울과 도쿄, 베이징 사무소도
서로 이어져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었어요.”

— 대니얼 리드(Daniel Read) 도쿄 사무소 캠페이너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양한 국가가 힘을 합쳐
서로를 동료로 여겨야 합니다.
동아시아 팀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항 바오(Hang Bao) 베이징 사무소 캠페이너

‘원전 보다 안전’ 우리의 안전은 저울질 할 수 없습니다

그린피스는 국민의 안전보다 원전을 중요시하는 정치, 사회, 문화와 제도를 변화시켜, 보다 빠르게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기 위해 ‘원전 말고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기구와 해외 전문가를 통한 국제법적 쟁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총회에서,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오염수 방류의 국제법상 위반 요소가 무엇인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정부에 국제해양재판소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오염수 방류를 막지 않으면
머지않아 왜 바다에 쓰레기를
왜 버렸냐는 원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다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를 더럽히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되죠.
바다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줄입니다.”

— 후쿠시마 어부 오노 하루오



초르노빌 방사선 조사 진행

2022년 7월, 초르노빌을 방문해 방사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린피스 팀은 러시아군의 점령으로 고의적으로 파괴된 자포리자 원전의 피해 사항을 조사하고, 고준위 방사선 물질들이 확산되어 키이우로 향하는 도로나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식수원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했습니다.

월성 원전의 위험을 알리다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 수조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음을 언론에 알리고 공론화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향후 기후위기에 노출된 국내 원전의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노후 원전들의 원자력 안전법 및 규제 위반 사항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정치를 만들어 주세요!

최근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우리의 기후행동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그린피스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목표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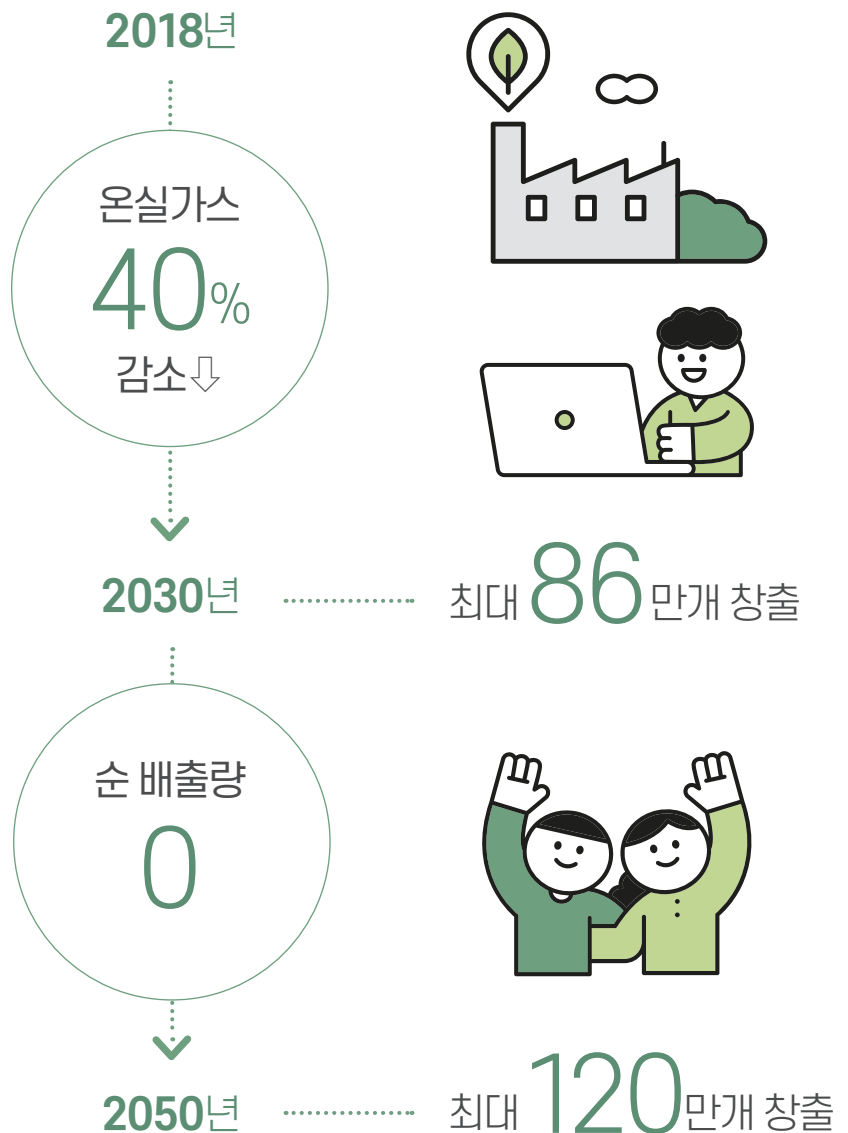
GREENPEACE

기후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

친환경, 지구를 위한 활동은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편견을 깨고, 기후위기 대응이 곧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매사추세츠 대학교 정치경제연구소와 함께 <한국 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세대학교 공과대학과 함께 ‘에너지 대전환과 일자리’라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일자리 창출 효과



시민들과 함께 정계에 기후위기 대응 요구

8월에는 부산역 광장에 거대한 북극곰 캐릭터 ‘열받곰’ 조형물을 설치하고, 시민들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12월 말에는 제3기 ‘그린뉴딜 시민행동’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3개월간 국회의원들의 기후위기 대응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기후위기를 헤쳐 나갈
가장 중요한 동력은 시민의 연대입니다.
우리 국회가 정파를 뛰어넘어,
시민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그린뉴딜 시민활동 참가자 김준성 님



지구의 혈액, 바다를 드디어 지켜낼 수 있을까?

바다는 지구 모든 생명체의 삶을
지탱합니다. 원활한 혈액 순환이
건강한 삶을 가져다 주듯,
바다의 원활한 순환이
건강한 지구를 유지해 줍니다.



1월

2022 그린피스 남극탐사

기후위기로 인한 남극 생태계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개월간 남극을 탐사했습니다.



3월

‘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 촉구’ 서한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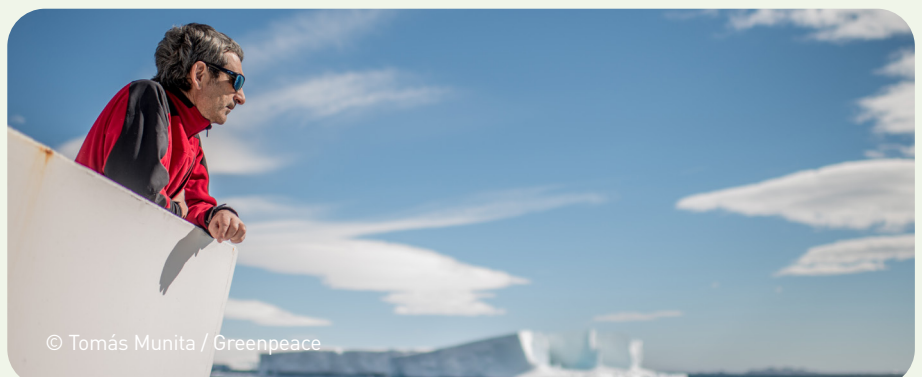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시민들의 서명과 그린피스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7월

남극 사진전

남극의 변화를 사진으로 담아 4만여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8월

해양보호 드론쇼

멸종위기 바다생물을 밤하늘에 띄워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12월

30x30 지정을 위한 세계 시민 서명 500만 돌파

500만 명이 넘는 세계 시민분들이 공해 보호를 함께
요구해 주셨습니다.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위한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은 이 지구상에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의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즉,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자연의 동식물을 보호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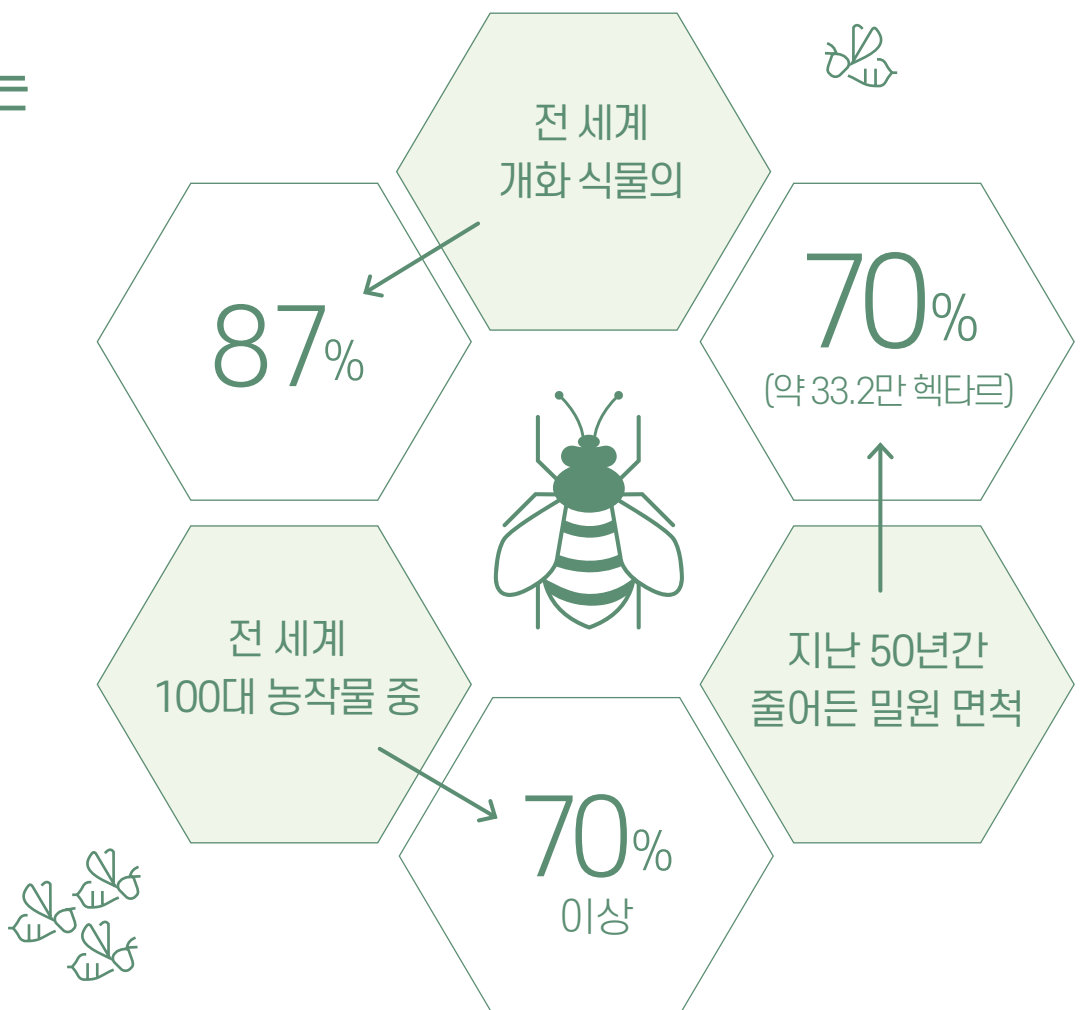


꿀벌 살리기 위원회

사라져가는 꿀벌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 문제에 꿀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콘텐츠들을 제작해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

2023년에는 꿀벌 문제를 다방면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농식품부와 더불어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의 다양한 부처로 구성된 국무총리 산하의 '꿀벌 살리기 위원회'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곤충의 수분에 의존하는 식물



아마존 생물다양성과 인권을 위한 연대

지난 6월, 그린피스와 함께 브라질에서 활동하던 저널리스트와 원주민 인권운동가 살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추모하고 브라질 정부에 아마존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근절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아마존' 탐사를 진행해 인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마니코레 강 지역 생물다양성을 조사했습니다.

유럽의 산림 벌채 방지법

그린피스 유럽은 2020년부터 백만 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산림 벌채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EU는 숲을 파괴하면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향해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강력한 글로벌 플라스틱 규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기업의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플라스틱 사용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STRONG
GLOBAL
PLASTICS
TREATY
NOW
GREENPEACE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그린피스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우리 정부가 더 큰 목소리를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말까지 다섯 번의 협상을 진행하는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글로벌 리더로서 협상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서울 사무소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플록조사

2022년,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사용량 조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무려 3,506명의 시민들이 조사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플록조사 참가자들의 한마디

● 오희영 참가자

“일반 시민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기업은 시민의 참여와 의견에 귀 기울이고 환경을 좀 더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오염을 덜 배출할 수 있는 생산법을 개발해 주세요. 같이 사는 나라를 망치지 말아 주세요.”



© Daiyoon Lim / Greenpeace

● 김지수 참가자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항상 쓰레기 및 재활용 문제로 고민을 하던 차에 반 아이들과 함께 플록조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과대 포장을 줄이고 포장재 재질을 바꿔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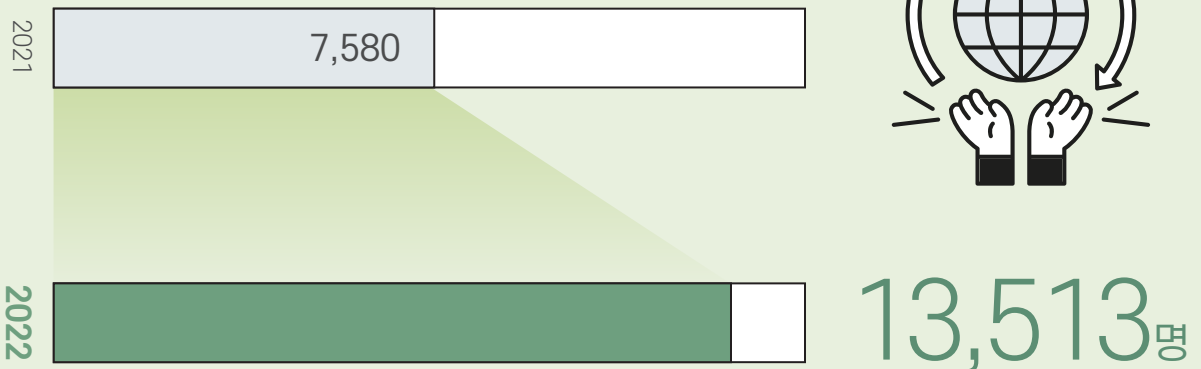


© Daiyoon Lim / Greenpeace

누구도 막지 못하는 우리의 열정

코로나19로 소원해졌던 만남과
관계가 회복되며, 봉사자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신규 등록



1번 이상 그린피스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49,524명



2022년 서울사무소의
자원봉사 시간

63,541시간

1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14,617명 아이들의 편지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어린이들의 편지를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했습니다.

2

국내 최대 플라스틱 시민참여 조사



3,506명이 참여한 '플록조사'.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어떤 기업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과도하게 생산하고 있는지 밝혀냈습니다.

3

선생님도 함께, 그린피스

환경 교육 인터넷 강의를 만들어 2,624명의 선생님들이 수강해 주셨습니다. '기후행동교사 모임'을 조직해 선생님과의 기후행동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4

정부와 국회는 우리가 감시한다



그린뉴딜 시민행동 3기가 출범해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법안 발의 모니터링, 국회의원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5

달리기로 알리는 꿀벌 대위기



참가자들이 직접 달리며 런데이 앱을 통해 꿀벌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어스앤런 허니비'를 개최했습니다. 총 3,029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미디어와 온라인 캠페인 활동

2022년, 그린피스는 더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통해 보다 알기 쉽게 캠페인을 전했습니다.



1. 주요 언론에 소개된 그린피스 캠페인과 환경 이슈

대중에게 가장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환경문제를 알리는 방법이 바로 뉴스와 미디어입니다. 그린피스는 TV 뉴스 및 신문, 온라인 방송 등 더 많은 언론에 캠페인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대선 기간에는 KBS와 함께 ‘기후위기 공약검증’을 진행해 9시 뉴스에 소개되었으며, MBC 뉴스데스크 기자들이 ‘플록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방송에 공개했습니다. 또한 월성원전 오염수, 초르노빌 원전 현장 조사, 현대기아차의 독일 배기가스 배출 조작 등 다양한 환경 이슈에 발 빠르게 대처해 많은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2. 온라인 채널을 통한 캠페인 소통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팀은 온라인에서 캠페인 활동을 소개하고, 흥미로운 캠페인 콘텐츠를 제작해 그린피스 의 캠페인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카드 뉴스



일주일에 한 번,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SNS 채널에 환경 이슈를 알기 쉽게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표소’ 액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유권자들과 대선 후보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광화문 앞에 가상 기표소를 설치했습니다.

‘은꿈지’ 웹툰 작가와의 협업



은꿈지 작가와 네이버 웹툰 ‘기후변화 그림일기’를 연재하며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 문제를 알렸습니다.

3.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는 인게이지먼트 활동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그린피스 캠페인을 친근하게 전합니다.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



멸종위기종 동물 7종(벵골호랑이, 푸른바다거북, 사막도마뱀, 반달가슴곰, 흰족제비, 황제펭귄, 코알라)을 ‘나를 닮은 동물 테스트’와 싱어 송라이터 제이유나가 부른 캠페인 주제곡으로 알렸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배경화면



그린피스 후원자인 김물길 작가님과 협업해, 해양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3,400분께 아름다운 바다생물 일러스트 배경화면을 드렸습니다.



4.

스타들이 함께 한 환경 캠페인

해양보호 애니메이션에 참여한 장윤주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애니메이션 ‘모두를 위한 바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의 내레이션에 모델 겸 배우 장윤주가 참여했습니다. 장윤주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오염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미안하다’면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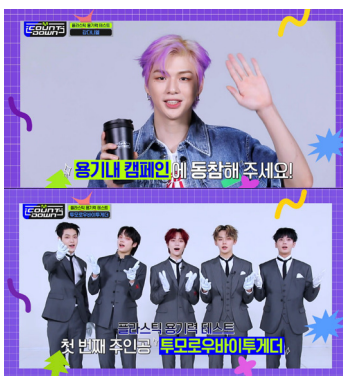


그린피스와 함께 하는 마음의 소리



조석 작가의 웹툰 ‘마음의 소리’와 함께 어린이들이 기후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Btv 잼키즈(ZEM Kids)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강다니엘의 ‘용기력’



두 아티스트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음악 방송 엠카운트다운에서 ‘용기력 테스트’에 직접 나섰습니다. 강다니엘은 ‘플라스틱 오염이 적었던 과거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래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서울사무소 최초

유산 기부자 박선화 후원자님



유산 기부는 사실 전부터 생각 해왔어요. 몇 년 전, 부모님께서 암에 걸려 편찮으시다가 한 달 사이에 연달아 돌아가셨거든요. 충격이 정말 컸죠. 한참이 지나서야 제 사망보험의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있는 게 생각났어요.

‘어차피 아이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는데 어디 기부할까?’ 생각하다가 그린피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유산 기부를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아서 후원금을 올리는 것은 부담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유산 기부라면 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공수래공수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어차피 제가 떠나면서 가져갈 수 없으니 기왕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기부를 하자 생각했죠.

아이들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데 이렇게 망가진
지구를 물려준다고 생각하니 미안하잖아요. 미래 세대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제 유산을 기부하자고 생각했죠.

이 지구는 우리가 잠시 빌렸다
미래 세대에 물려주고 가는 거니까요.



15년 묵은 약속을 지켜낸 한 신혼부부의 이야기

결혼 축의금을 기부해주신
구향희, 김학준 후원자님

20대 초반, 우리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같이 석양을 한참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혹시라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난 꼭 기부를 하고 싶다고.





결혼식에 와주신 분들께 어떻게 이 마음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마음이 담긴 축의금의 일부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마음을 돌려드리는 한 방법이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동, 장애인 분야가 아닌 환경단체를 선택한 건 일종의 반성인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의 2세, 3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죠. 우리 부부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티나 산 비센테
동아시아 지부 부사무총장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일절 후원을 받지 않는 독립적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여러분과 같은
개인 후원자님들의 후원이 있기에
2022년에도 쉽 없이 지구를 위한
캠페인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변화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만 원의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기후위기 대응
32.6%(9,791원)



해양 보호
5.9%(1,767원)



독성물질 제거
2.2%(649원)



산림 보호
1.6%(488원)



글로벌 및 교차 캠페인
30.6%(9,183원)



캠페인 미디어 및 대중 노출
17.2%(5,165원)



친환경 정책 및 비즈니스
6.6%(1,974원)



과학 조사 및 연구
1.1%(321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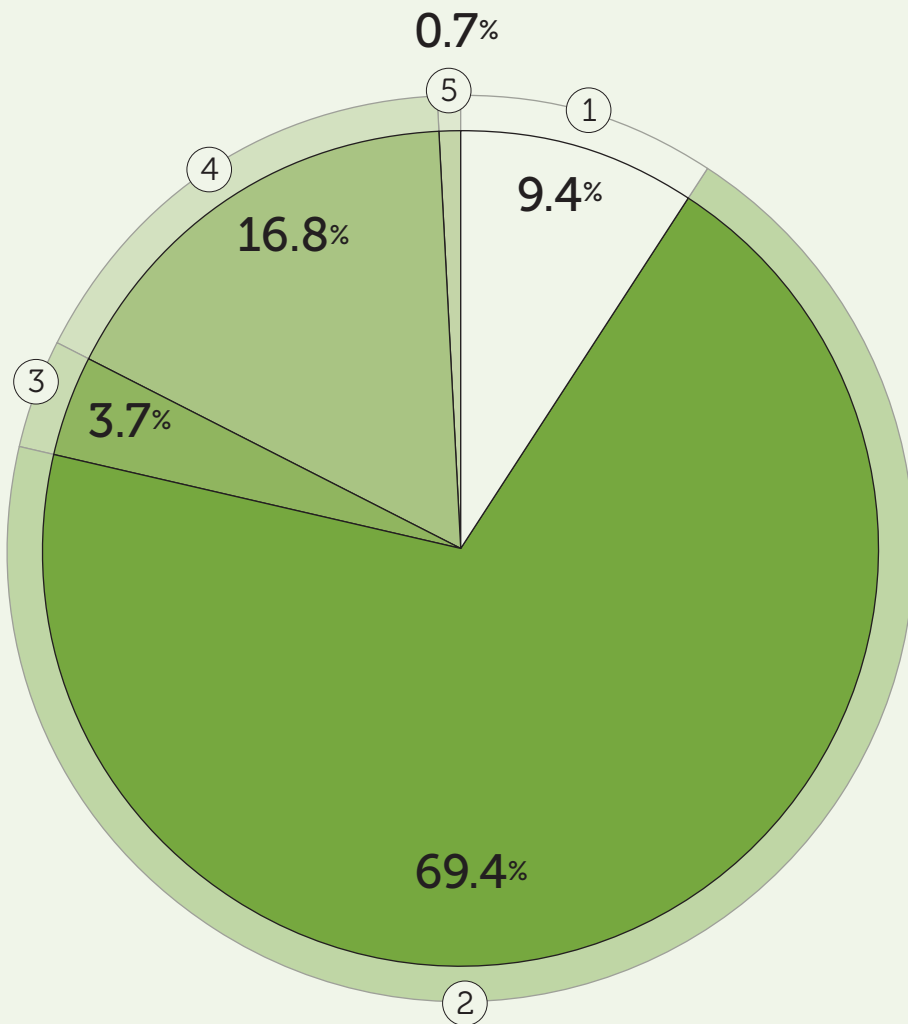


비폭력 직접행동 및 액티비스트
2.2%(662원)

2022 동아시아지부 수입 내역

총 수입
(단위: 원)

54,899,847,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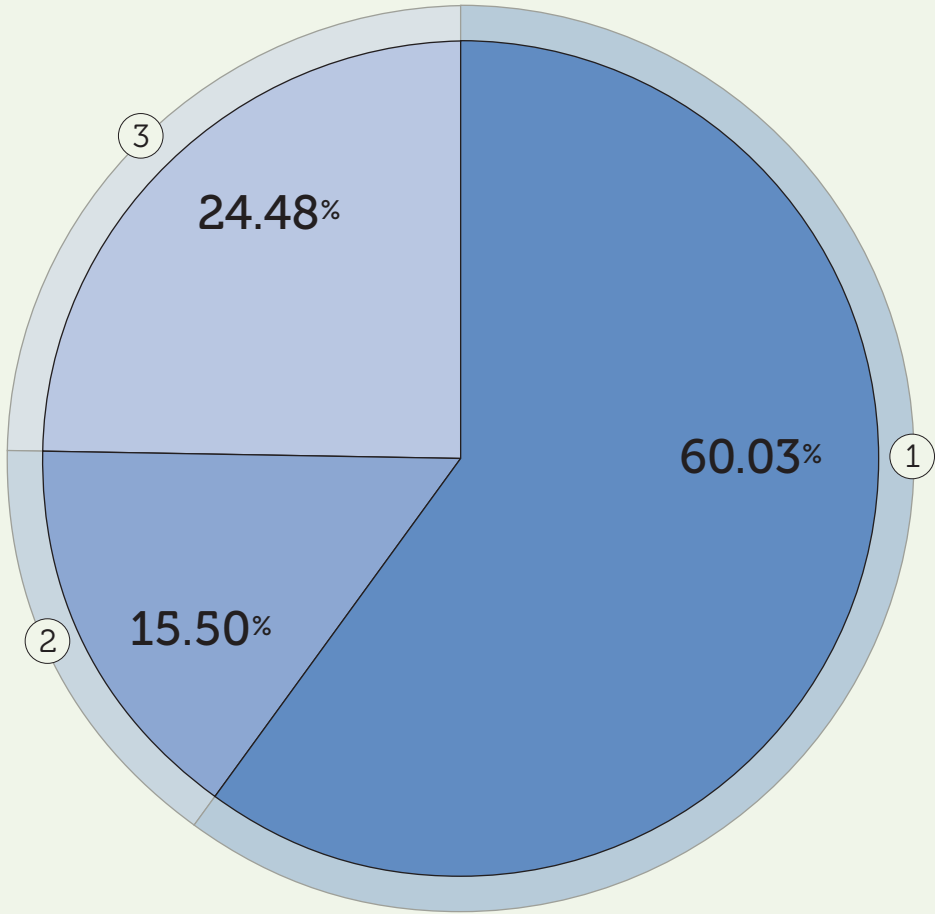


1	신규 후원자 후원금	5,171,933,914
2	기존 후원자 후원금	38,109,139,124
3	재단 및 신탁, 고액 후원자 후원금	2,014,530,729
4	그린피스 국제본부 보조금	9,221,226,791
5	이자 및 기타	383,016,840

2022 동아시아지부 지출 내역

총 지출
(단위: 원)

54,327,994,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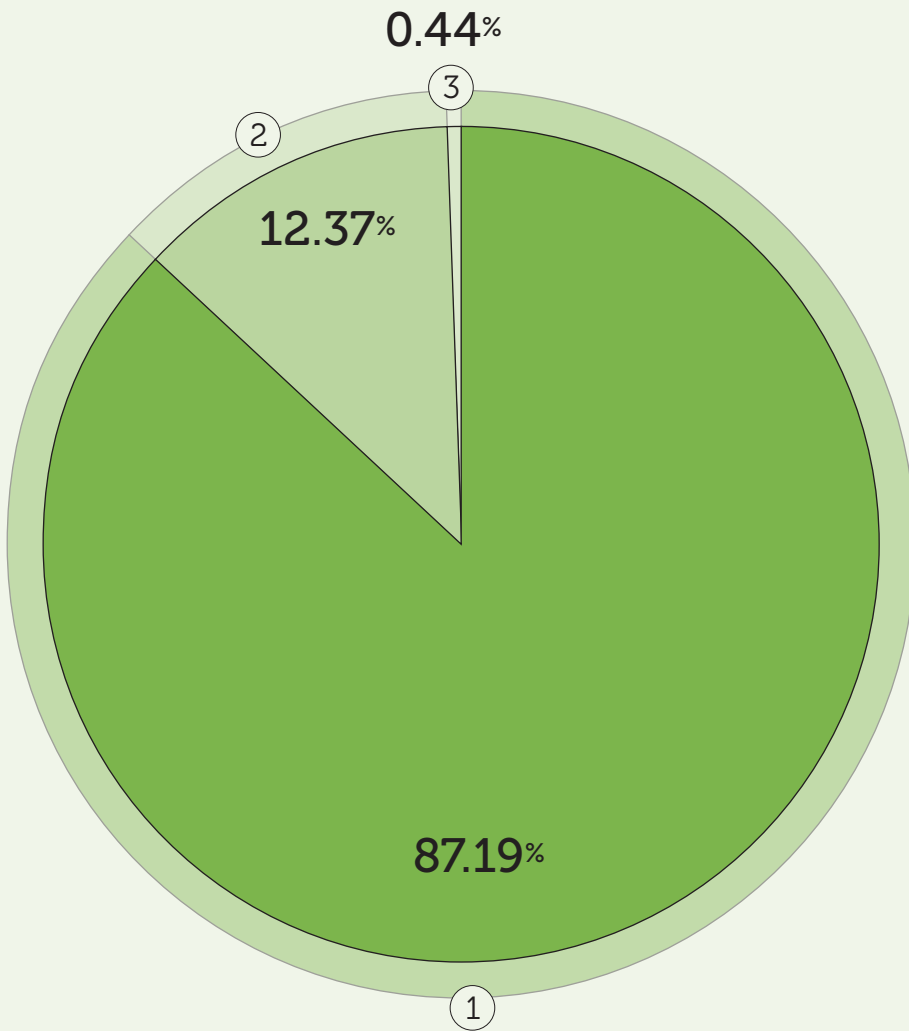
1	캠페인 및 캠페인 지원 (기후에너지, 해양 보호, 산림 보호, 독성물질 제거, 국제 그린피스 지원, 교차 캠페인, 캠페인 언론 홍보, 비폭력 직접활동, 온오프라인 시민 참여, 정책 및 과학 연구)	32,611,144,482
2	조직 지원 (재무 관리, IT지원, 인사, 행정, 법률 자문 등)	8,421,424,313
3	모금 및 후원자 관리	13,294,844,425

*반올림으로 인해 백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2 서울 사무소 수입 내역

총 수입
(단위: 원)

15,202,175,524



1

기존 후원자 후원금

13,255,238,515

2

신규 후원자 후원금

1,879,882,16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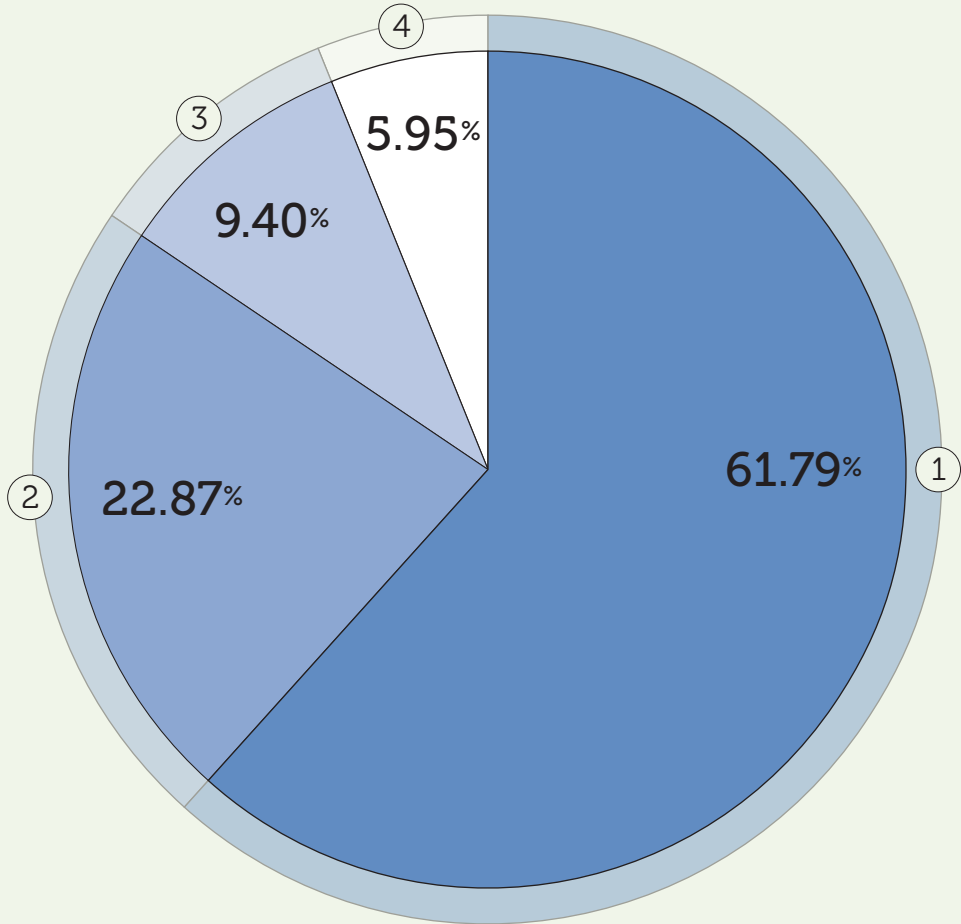
이자 및 기타

67,054,846

2022 서울 사무소 지출 내역

총 지출
(단위: 원)

15,117,181,405



1	캠페인 및 캠페인 지원 (기후에너지, 해양 보호 및 극지방, 탈핵, 플라스틱, 국제 그린피스 지원, 교차 캠페인, 캠페인 코디네이션, 언론 홍보, 시민 교육, 비폭력 직접행동, 서포터 커뮤니케이션, 정책, 사업 및 과학 연구)	9,341,075,922
2	모금 및 후원자 관리	3,456,590,251
3	조직관리 (재무관리, IT지원, 인사관리, 법률 자문, 직원 개발 등)	1,420,592,311
4	기타 (이자비용 및 환차손 등)	898,922,921

왜 여러분의 후원이 중요할까요?

그린피스는 절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기업, 정치 단체로부터 절대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린피스가 지구를 위한 변화를 만드는 데 개인과 민간 독립 재단의 후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시민들의 지원 없이 그린피스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 모든 동식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후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 그린피스를 후원해 주세요!

후원하기

